

# 트럼프 관세·中 추격까지... 삼성·LG, TV 점유율 방어 나선다

## 프리미엄 TV 시장 격변 대응책

삼성, Neo QLED·OLED 시장 선도  
AI 기술 활용,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LG, 웹OS·콘텐츠 플랫폼 수익 창출  
고객중심 솔루션 새 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며 글로벌 시장 선두를 탈환한 데 이어 한국 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2, 3위를 모두 차지하며 LG전자를 밀어냈다. 여기에 노벨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 공장을 운영 중인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가격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 이 밖에도 북미를 중심으로 플랫폼 TV사업이 급성장하면서 TV 시장의 출혈 경쟁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웹OS 기반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보급형 TV 라인업도 출시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3일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 함이 처음으로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을 넘어섰다. 이번이 중국 3대 TV 브랜드인 TCL·하이센스·샤오미의 올해 3분기까지 전체 TV 시장 점유율(수량 기준) 합은



삼성전자 Neo QLED 8K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30.1%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 삼성전자(18.1%)와 LG전자(11.3%)를 합한 점유율 29.4%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간 꾸준히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만 해도 점유율이 21.9%였지만, 올해 18.1%로 떨어지며 점유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LG전자는 2020년 글로벌 판매량 순위 2위였지만 올해는 4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두 회사의 주력 제품인 프리미엄 TV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도 중국 기업들이 바짝 뒤쫓아오며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1위를 지키고 있지만 2, 3위는 모두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며 LG전자를 밀어낸 것.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에 따르면 프리미엄 TV 모델은 출하량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리미엄 모델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퀀텀닷 액정표시장치(QD-LCD)·미니 LED 등으로 구성된 TV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30%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43%를 달성했던 1년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반면 중국 하이센스와 TCL은 올해 3분기 프리미엄 시장에서 LG전자(16%)를 밀어내고 각각 2, 3위에 올랐다. 하이센스와 TCL은 지난해 3분기에 각각 14%, 11%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는데, 이번 3분기에는 24%, 17%로

점유율이 급증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가 글로벌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이슈까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에 가전 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케레타로에서 가전 공장을, 티후아나에서 TV 공장을 각각 운영 중이다. LG전자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라모스(전장) 등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서 두 회사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경제지마켓워치는 “프리미엄 제품 구매 계획이 있다면 관세 정책 적용 전인 이번 쇼핑 시즌을 주목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수입품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 제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북미를 중심으로 플랫폼 TV 사업도 급성장하면서 TV 시장의

출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신생 기업 텔리(Telly)는 지난해 광고를 시청하면 55형 TV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옴디아 폴 그레이 연구원은 최근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TV 시장의 권력이 브랜드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점유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보급형 TV라인업을 확대하며 초대형 TV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난 3월 보급형 TV 라인업인 ‘크리스탈 UHD’에 98인치 제품을 출시하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대형 TV 구입 유인도를 높였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98인치 QLED(Q80C)를 4000달러 할인한 3999.99달러에 판매하는 등 할인 폭을 높이고 있다. 또 플랫폼 TV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타이젠OS가 탑재된 TV를 통해 FAST 서비스 ‘삼성 TV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전자는 웹OS(webOS)를 앞세워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본업인 전자제품 제조와 함께 직접 콘텐츠 제작에 나서는 한편,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HE사업본부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이라는 지향점에 맞춰 MS사업본부로 변경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LG엔솔, GM과 각형 배터리 공동개발

### 미국 얼티엄셀즈 3공장 인수 검토 글로벌 전기차 시장 지배력 확대

LG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 투자해 미국 미시간주에 건립 중이던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이는 북미 공장 가동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GM와 손잡고 각형 배터리를 개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GM은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건설 중인 합작법인 얼티엄셀즈의 배터리 제3공장 지분을 합작 파트너사인 LG에너지솔루션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M은 “랜싱에 거의 완공돼 가는 얼티엄셀즈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조인트벤처(JV) 파트너사인 LG에너지솔루션 매각하기로 구속력 없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북미 공장의 투자 및 운영 효율화, 가동률 극대화 등을 위해 미국 미시간주 랜싱 지역에 위치한 얼티엄셀즈 제3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확정되는 대로 공시 등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두 회사는 현재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다. 인수가 이뤄지면 LG에너지솔루션은 3공장을 북미 주요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얼티엄셀즈 3공장은 총 26억달러(약 3조5650억원)가 투입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다. 지난 2022년 착공해 올



LG에너지솔루션·GM 합작 얼티엄셀즈 오하이오 1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

해 하반기 준공하고 내년 초 1단계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속도 조절에 나서며 얼티엄셀즈 3공장 가동도 지연됐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제3공장 인수가 실현되면 해당 공장의 생산분을 제너럴모터스(GM)가 아닌 다른 곳에 납품할 수 있다. GM은 3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액 약 10억달러(약 1조4065억원)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1위 자동차 업체 GM과 ‘각형 배터리 및 핵심 재료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발된 각형 배터리는 향후 GM의 전기차에 탑재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전세계 배터리 업체 중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모든 배터리 폼팩터를 포트폴리오로 갖춘 유일한 기업이 됐다.

납작한 상자 모양의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캔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셀 자체의 강성이 높아 배터리 모듈, 팩 단계에서 구조적인 간소화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파우치형, 원통형뿐 아니라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도 내재화된 개발 및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각형 패키징 기술을 비롯해 설계 및 공정 분야에서도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극 생산 및 스테킹 공법 기술력은 각형 배터리 개발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함으로써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업계 유일한 ‘3대 폼팩터(all three form factors)’ 전략 체계를 갖췄다. 미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또 한 번의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셀트리온, 서정진 소유계열사 ‘부당 지원’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억 부과  
의약품 보관용역·상표권 부당 제공

셀트리온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한 서정진 회장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일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사 셀트리온이 동일한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에 합리적 사유 없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

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16년부터 대기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한 서정진 회장이 88.0%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 무상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도 무상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공감지능”으로 차별화된 스마트 라이프”

LG, CES 2025서 미래 청사진 제시

LG전자가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공감지능과 함께 하는 일상의 라이프스 굿’을 주제로 회사 혁신과 비전을 공개한다.

LG전자는 3일 CES 2025 개막에 앞서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 ‘LG 월드 프리미어(LG World Premiere)’를 알리는 초청장을 공개했다.

올해는 조주완 LG전자 CEO(최고경영자)가 현지시간 내년 1월6일 오전 8시

부터 만달레이베이(Mandalay Bay) 호텔에서 대표 연사로 무대에 오른다. LG전자 AI는 ‘고객을 더 배려하고 공감해 보다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을 표방한다.

조 CEO는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사 관계자 등 1000여명을 현장에 초청한 가운데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는 LG전자가 AI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고객의 다양한 경험과 공간을 연결·확장하며 일상을 변화시키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